



부산도시계획헌장

미래 부산 도시계획 100년의 약속

부산은 유라시아 관문으로 늘 새로운 문명의 수용과 확산의 중심이 된 도시이다. 우리의 삶터인 이곳은 일찍이 해양문화를 꽃피운 곳으로 근대 이후 신문화를 받아들인 곳이며, 여러 지역의 사람과 문화를 품어낸 피란수도로 오늘에 이르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과 가치를 이어 받아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든다. 부산도시계획은 민주적 과정을 통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함께 어우러져 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한다. 우리는 부산만의 독창성을 살려 공공의 가치가 우선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계획과 바다, 산, 강이 조화로운 해양수도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은다. 이에, 부산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미래 부산 도시계획 100년의 약속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p>지속 가능한 부산다운 토지이용</p>	<p>활기찬 지역경제와 건전한 지역사회, 건강한 생태환경을 고려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한다.</p>
 <p>다양하고 활기찬 주거환경</p>	<p>소득, 연령, 문화를 고려한 다양하고 안전한 주거를 제공하여 이웃과 행복하게 어울려 사는 건강한 공동체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p>
 <p>삶의 터전이 되는 도시재생</p>	<p>부산 도시재생은 지역 정체성 및 주민공동체 회복을 추구하고 소득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미래세대를 포함한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p>
 <p>안심되고 안전한 도시</p>	<p>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사회 안전 취약지역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재난대응계획과 신속한 생활밀착형 방재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p>
 <p>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p>	<p>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실천하고 탄소배출 제로도시를 지향하여 원전과 미세먼지 걱정 없는 도시환경을 만든다.</p>
 <p>걷고 싶은 친환경 교통도시</p>	<p>누구나 걷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 중심의 친환경 스마트 교통도시를 만든다.</p>
 <p>균형과 효율을 갖춘 기반시설</p>	<p>건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해양도시를 추구한다.</p>
 <p>자연과 조화되는 매력 있는 경관도시</p>	<p>바다와 산, 강이 만드는 자연의 매력을 보존하고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개성있는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열린 바다, 산 능선과 어우러진 스카이라인, 매력적인 색채와 디자인을 추구한다.</p>
 <p>곁에 있어 머무르고 싶은 공원도시</p>	<p>쉽게 다가갈 수 있고 머무르고 싶은 공원과 치유와 소통의 숲으로 가득한 푸른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거주 공간 공원화와 보행로 숲길 조성 등을 모두 함께 노력한다.</p>
 <p>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p>	<p>아름다운 해안선과 갈맷길 등 부산의 색깔과 장소성을 살린 문화관광자원을 보전하고 발굴하여 시민이 누리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를 구현한다.</p>

2017년 12월 18일